

##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 도보로 15분  
6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유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0 **홈페이지** <http://www.nfm.go.kr>



### 이용 안내

**개 관 및** 3~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관람 시간** 11~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5~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휴 관 일** 매주 화요일 **입 장 료** 무료

※공연접수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02 February 2013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매주 토요일 오후3시 Every Saturday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2월 토요일 상설공연

# 02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Saturday Performances for February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제783회  
아나야와 함께하는 “세대공감음악여행”  
‘Musical Journey of Generation Empathy’ with Anaya

02. 02



제784회  
박정욱의 철물이 굿 “꽃맞이”  
Cheolmuri-gut 'Kkotmaji' by PARK Jeong-uk

02. 09



제785회  
경기소리 “5인5색”  
Gyeonggi Sori 5 People, 5 Colors

02. 16



제786회  
임금옥의 “춤”  
Dance by YIM Geum-ok

0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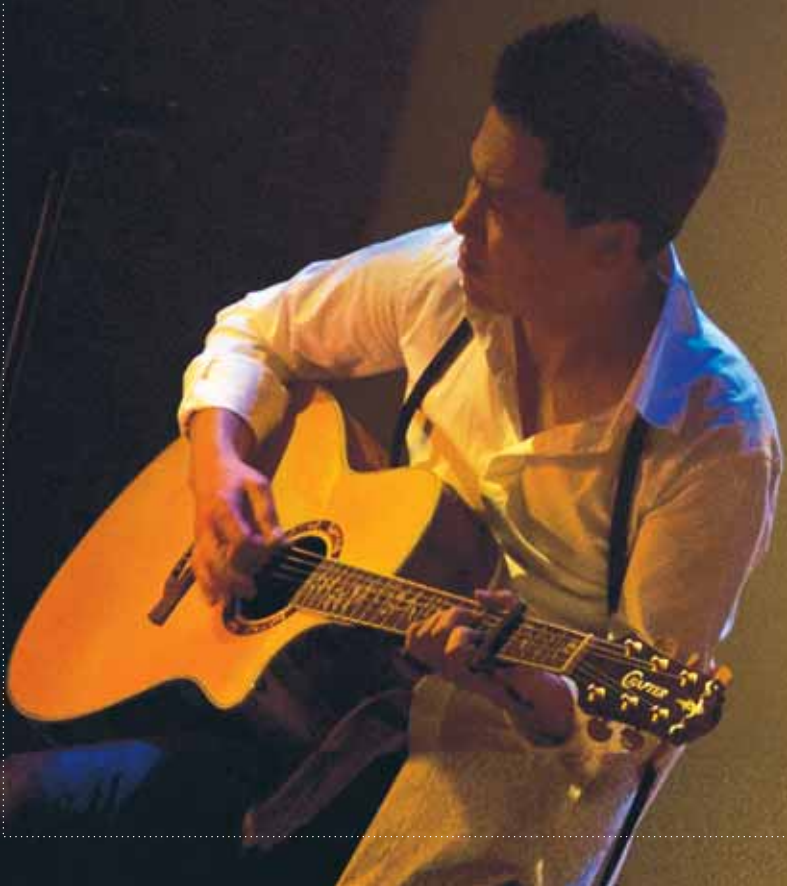


※공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은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2

February 2013

# 아나야와 함께하는 세대공감음악여행

'Musical Journey of Generation Empathy' with Anaya

## 2013. 2. 2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 February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그룹 아나야의 3인3색 보컬이 민요와 랩퍼 그리고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ек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쉽고 반복적인 후렴구와 작은 율동이 함께하여 '세대공감음악여행'의 재미를 더할 것이다.

첫 무대는 자신 있고 과장된 표현으로 남을 찾아가는 간절함이 있는 노래 '아리랑 아나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전통 민요 중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담은 노래로 한 편의 옛이야기를 듣는 듯한 진주난봉가,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통통하고 호기심 많은 강아지를 표현한 똥개 아롱이, 제주칠머리당굿의 무속음악 서우제 소리를 기반으로 작곡한 서우제, 연인들의 귀여운 사랑싸움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절화가, 마지막으로 사설난봉가의 한 소절을 차용하여 랩과 민요가 대화를 나누는 듯 흥겨운 노래 '큰애기 놀아난다'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Today, the group Anaya will present a beautiful musical performance with harmony of three singers: a Korean folk song singer, a rapper and a pop singer. The performance will offer an opportunity for audience to enjoy singing and dancing together under the title of 'Musical Journey of Generation Empathy'.

The opening is 'Arirang Anaya', a desperate song looking for a lover. The following is 'Jinju Nanbong-ga' of which sounds like an old story of a hard woman's married life; 'Tong-gae(a mongrel dog) Arong-yi', reminding of a fat and curious dog at grand mother's house; 'Sewoojeoh', based on shamanic music Sewoojeoh in Jeju Chilmeoridang-gut; 'Jeolhwaga' which shows an affectionate view on a love quarrel.

The finale is 'Keun-aegi Norananda', a cheerful song seemed like having a conversation between folk song and rap by borrowing a measure of Saseolnanbong-ga.

### 공연순서 PROGRAM

1. 아리랑 아나야 Arirang Anaya
2. 진주난봉가 Jinju Nanbong-ga
3. 똥개 아롱이 Ttong-gae(a dog of nondescript breed) Arong-yi
4. 서우제 Sewoojeoh
5. 절화가 Jeolhwaga
6. 큰애기 놀아난다 Keunaegi Norananda



대표 민소윤(그룹 아나야 음악감독)

출연 김채운, 박종일, 강다연, 권준택,  
김용원, 장석원, 허일두

# 박정욱의 철물이 굿 꽃맞이

Cheolmuri-gut 'Kkotmaji' by PARK Jeong-uk

## 2013. 2. 9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9 February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한 해 동안의 모든 액이 사라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철물이굿 공연을 준비하였다.

굿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신을 청하는 소리 산청울림을 시작으로 부정을 제거하고 굿청을 정화하는 주당풀이, 초감흥거리에서는 여러 신령들을 불러들인다. 불러들인 신령은 순서에 맞게 모시는데 정기의 원천인 산신, 수명을 담당하는 칠성신, 복을 나누어주며 소찬을 좋아하는 대감신을 불러 모신다. 다음으로 옛 농경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연행되는 소놀이굿을 진행하여 풍농을 기원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녕을 비는 타살감흥거리를 진행하고, 사업의 번창과 집안의 평안을 책임지는 대감신을 즐겁게 놀리는 대감놀이를 한다. 이어서 여러 조상을 불러 모신 후 조상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비는 조상거리와 마지막으로 잡신들을 위로하여 집안의 평안을 비는 굿으로 마무리된다.

In this performance, 'Cheolmuri-gut' will present to wish all the best of the audience and repel their misfortunes in the New Year.

The first process of the gut is 'Sancheong-ulim' to invoke gods. Following is 'Judangpuri' to remove impurities and purify gutcheong(main hall for the whole gut), and shamans invoke different kinds of gods on the 'Chogamheung-geori'. Gods are served in the following order: Sansin(the god of mountains), Chilseongsin(the god of longevity) and Daegamsin(the god of happiness and fortune).

Nextly, 'Sonoreum-gut' is presented to wish good harvest in the agricultural society. 'Tasalgamheung-geori' is to prevent all sorts of accidents. 'Daegamnori' is to please Daegamsin, the god of family's happiness and health, and prosperous business. 'Josang-geori' to comfort ancestors and pray for their easy passage in to eternity. The last part of gut is to pray for family's happiness by comforting jabsin(gods of evil spirit).

### 공연순서 PROGRAM

1. 철물이 굿 Cheolmuri-gut



대표 박정욱

특별출연 김점순(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

출연 임영미, 김숙이, 이찬우, 박은진,  
박헌수, 박종국, 신비성, 김지애

# 경기소리 5인5색

Gyeonggi Sori 5 People, 5 Colors

## 2013. 2. 16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16 February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전수조교 및 이수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젊은 소리꾼들이 경기소리 5인5색의 주제로 다양한 색깔의 경기소리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12잡가의 하나로 제비가 주제를 한 곡으로 연자가(燕子歌)라고도 하는데 곡조와 리듬의 변화가 재미있게 짜여져 비약적인 가락이 돋보이는 경기 12잡가 중 제비가를 선보인다. 이어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 병창으로 새롭게 편곡한 금강산타령, 부모의 사랑과 은공을 기리며 표현한 회심곡, 소박하고 향토미를 풍기는 소리로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강원도 민요를 살풀이춤과 함께 표현한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무가(巫歌)에서 파생한 노래로 무당춤에 어우러져 선보이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흥겨운 경기민요의 다양한 리듬과 변화를 이어가는 장구춤과 함께하여 표현한 방아타령, 잣은방아타령, 마지막으로 공연자 모두가 함께하여 관객과 어우러져 노래하는 한강수타령, 뱃노래, 잣은뱃노래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The theme of today is '5 People, 5 Colors', the performance of Gyeonggi Sori by 5 young soriggun(singers) including record holders and successors of the Gyeonggido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31.

The first song is 'Jebiga' which is about a Jebi(a swallow) among 12 jabga. Jebiga, known as 'Yeonjaga', is famous for saltatorial tune by its comical mixture of different melodies and rhythm.

For the next, 'Geumgangsantaryeong', newly arranged Byeongchang(chorus), a song of beautiful scenery of Geumgangsantaryeong. 'Heosimgok', a song to remember parents' love. 'Jeongseon Arirang', 'Han-o-baeknyeon(About 500 years)' and 'Gangwondo Arirang', which convey doleful sound and Salpuri dance. 'Norae-ga-rak' and 'Changbu Taryeong', derived from shamanism songs. 'Bang-a Taryeong' and 'Bang-a Taryeong in Rapid Tempo', combined with Jangguchum(hourglass-shaped drum dance) under various rhythm of Gyeonggi Folk songs.

For the last stage, audience will be invited to sing along with songs: 'Hangansu Taryeong', 'Sailor's Song' and 'Sailor's Song in Rapid Tempo'.

### 공연순서 PROGRAM

1. 경기 12잡가 중 제비가 Jebiga(Song of a Swallow)
2. 금강산타령 Geumgangsantaryeong
3. 회심곡 Hoesimgok(repenting song)
4.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Jeongseon Arirang, Han-o-baeknyeon(About 500 years), Gangwondo Arirang
5. 노랫가락, 창부타령 Norae-ga-rak, Changbu Taryeong
6. 방아타령, 잣은방아타령 Bang-a Taryeong, Bang-a Taryeong in Rapid Tempo
7. 한강수타령, 뱃노래, 잣은뱃노래 Hangansu Taryeong, Sailor's Song, Sailor's Song in Rapid Tempo



대표 이윤경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전수조교)

출연 이나현, 윤현숙, 김세윤, 윤미영

# 임금옥의 춤

Dance by YIM Geum-ok

## 2013. 2. 23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3 February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무용가 임금옥이 멋과 흥이 돋보이는 춤사위로 공연을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버드나무가지에서 노래하는 피꼬리를 무용화한 것으로 좁은 꽃자리 위에서 노란 앙삼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오색 한삼을 손에 끼며 서정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는 춘앵전 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춤으로 발 디딤새가 돋보이는 태평무, 단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으로 가야금 산조가락에 춤을 얹어 표현한 강태홍류 산조춤, 낫쇠로 만든 작은 타악기 향발을 두 손에 들고 음악에 맞추어 향발을 치면서 춤을 추는 무녀수악, 철가야금 반주에 한국적인 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황혼, 마지막으로 소박한 여인의 자태와 그 내면적인 한(恨)과 흥(興)을 살려 고요할 정(靜), 가운데 중(中),움직일 동(動)의 3요소를 바탕으로 살풀이 장단에 한을 담아내어 표현한 '정금에 담긴 여인들'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A Korean traditional dancer, YIM Geum-ok, prepares the dance performance with wonder and merriment.

In the opening the dancer will present 'Chun-aengjeon', the solo dance embodies an image of an oriole twittering on a willow, by sitting on the figured mat and wearing a yellow Aengsam(gown), flower coronet and 5 colored Hansam(long gloves).

Following is 'Taepyeongmu' which shows elegant movement to pray for peace and abundant harvest in the country. 'Sanjochum' in GANG Taehong kind is a grace and dainty dance on top of Gayageum Sanjo rhythm. The dancer in 'Mu-nyeo-su-ak' holds small percussion instrument called Hyangbal(similar to cymbals), made of brass, and dances in accordance with music and beating sound of Hyangbal. 'Evening Twilight' is a dance showing off beauty of Korean lines under accompany of iron Gayageum(12-stringed Korean Zither).

Finale is 'Women in Refined Gold', the performance which depicts ladies Han(sorrow) and Heung(merriment) based on the elements of Salpuri tempo: Jeong-Jung-Dong(stillness in movements).

### 공연순서 PROGRAM

1. 춘앵전 Chun-aengjeon
2. 태평무 Taepyeongmu
3. 강태홍류 산조춤 Sanjochum in GANG Taehong kind
4. 무녀수악 Mu-nyeo-su-ak
5. 황혼 Evening Twilight
6. 정금에 담긴 여인들 Women in Refined Gold



대 표 임금옥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제례악 일무 이수자)

출 연 박지혜, 최영옥, 이순청, 여주연,  
김현지, 백미진, 김세원

#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2

February 2013